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직업탐구영역 인간 발달과목 해설지

[정답]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①	①	②	④	②	⑤	①	④	①	②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④	②	③	③	⑤	⑤	①	③	③	④

[해설]

1. [정 답] ①

[해 설] A씨는 질병이 있는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후 건강한 두 번째 부인과 결혼을 하였다. 질병이 있는 부인과의 사이에 질병이 있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건강한 여성과 결혼을 해도 질병이 나타난다. 이에 반해 건강한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는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고 이 아들은 다시 건강한 여성과 결혼을 해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이 가계도를 통해 볼 때 질환은 유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하려면 한 가정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조사해야 하므로 종단적 연구하고 할 수 있다.

2. [정 답] ①

[해 설] 화상 전화가 아닌 일반 전화로 아빠와 영희가 통화를 하고 있다. 아빠의 질문에 말로 답변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영희는 아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유아기에는 또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인공론적인 사고와 물활론적인 사고를 나타낸다.

ㄱ은 무생물인 달에 ‘먹는다’, ‘살아간다’라는 표현으로 생명체로 생각하는 물활론적 사고를 나타내고 있다. ㄴ은 바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직관적 사고를 말한다. 유아기에는 ㄷ과 같은 사고와 ㄴ의 보존개념은 획득되지 않는다.

3. [정 답] ②

[해 설] A 시기는 일생 중 가장 급속도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영아의 시기와 그 후 완만하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유아기의 시기이다. 두 번째 구간은 그 이전보다 성장이 더디지만 계속 성장이 이루어지는 아동기이고, B는 제2의 가속기인 청년기를 나타내고, 네 번째 구간은 비교적 변화가 없으며 다소 감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성년기이다.

A와 B 시기에는 개인차의 폭도 크게 나타나나 아동기는 그 폭도 작다.

4. [정 답] ④

[해 설] 미희는 놀면서 가끔씩 엄마를 확인하는 것은 애착이 형성되었지만 안정적이지는 않다. 엄마가 자리를 비우면 울면서 찾는 것은 불안함의 표현이다.

선미는 엄마가 주위에 있을 때 불안한 표정이지만 잘 노는 것으로 보았을 때 미희와 마찬가지로 불안 애착이 형성되었다. 엄마가 자리를 비우면 울면서 찾다가 엄마가 돌아왔을 때 분노, 저항의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불안-저항 애착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수는 엄마가 있으나 없으나 무관심한 것으로 보아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다.

5. [정 답] ②

[해 설] 일기를 통해 볼 때, 중년기 이후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는 가치관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마지막 부분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으로 볼 때 가장 적절한 답은 목표이다.

6. [정 답] ⑤

[해 설] 그림은 양수 검사를 나타내고 있다. 양수 검사는 수정 후 11~14주 사이에 유전자 이상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융모막 검사보다 유산의 위험이 적다.

7. [정 답] ①

[해 설] 브론펜브레너의 4가지 체계에서, 교사와 부모는 아동에게 미시 체계에 해당한다. 직장, 대중매체 등 다른 환경 체계들 간의 상호 작용은 중간 체계를 말

하는 것이다.

8. [정 답] ④

[해 설] “나는 누구인가?” 등 자아 정체감의 문제가 청년기에 대두 되는 이유는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와 성적 성숙 때문에,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또한 청년기에는 선택과 결정의 시기이고 현저한 성장을 보이는 지적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9. [정 답] ①

[해 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대해 아동은 엄마가 남을 도와야 착한 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고 답변한 내용을 보았을 때 아동은 주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하는 상호 관계의 도덕 단계에 해당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정 답] ②

[해 설] 제시문을 통해 볼 때 뼈 검사 결과는 골 밀도 수치가 높게 나와 건강한 것으로 보아 골다공증의 소견은 없고, 오른쪽 눈이 안개가 낀 듯 뿌옇게 보인다는 것으로 보아 70대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경험하는 백내장과 고음을 잘 듣지 못해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 한 것으로 노인성 난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정 답] ④

[해 설] 아동은 보고 있는 동안은 물론 보고 있지 않는 동안에 이동 시킨 물체도 찾아내는 것으로 보아 대상 영속성 개념이 획득되었다. 이에 따라 표상적 사고가 가능하고, 물체의 이중이동 개념도 획득하였고, 대상을 이미지로 기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정 답] ②

[해 설]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보존 개념이 획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여러 과정을 거치지 않고, A나 B를 말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을 것이나,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고 있다는 것을 과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13. [정 답] ③

[해 설] 그림에 나타난 살림이나 육아는 여성의 표현적, 양육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여성성을 가함으로써 양성성을 지향하고, 남성의 무의식속에 잠재된 여성성의 표출 즉, 아니마를 기대하고 있다.

14. [정 답] ③

[해 설] 경험이나 환경, 성숙과 다른 개념, 훈련도 포함하는 것은 학습을 말한다. 기어다니다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성숙으로 일정 시기가 되면 별도의 연습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큰 파악 반사로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무조건 반사이다. 이 반사도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15. [정 답] ⑤

[해 설] 큐블러로스는 죽음 전에 부정, 분노, 흥정, 우울, 인정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이 중 종교의 힘에 의지하거나 호소하고, 조금이나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기는 흥정의 시기이다. 이러한 흥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수용하게 된다.

16. [정 답] ⑤

[해 설] 기범은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친구들이 '의미있는 타인'이다. 이렇게 사회 생활을 통해 모방, 학습함으로써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은 반두라의 사회 학습 이론이다.

민희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 의미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여 자아실현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이는 매슬로의 인본주의 이론이 이에 해당한다.

서연은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에 의해 학습을 한다는 이야기이므로 왓슨의 학습 이론을 말한다.

17. [정 답] ①

[해 설]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고, 이전 세대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성숙의 가속화 현상에 대한 내용이다. 여아는 9세에서 16세, 남아는 10세에서 18세 사이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발달상에 남아 성차는 물론 개인차가 크다. 또한 일정 시기에 사춘기가 나타나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성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됨으로써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비만, 환경 호르몬 등 유전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18. [정 답] ③

[해 설] 넘어지지 않고 뛸 수 있는 것은 2세, 물체를 집을 수 있는 것은 9개월, 두 단어를 조합하여 의사 표현을 하는 시기는 2세이다. 언어를 통한 자아통제가 가능한 시기는 5세이고, 협동 놀이는 유아기 후기에 나타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이 아동은 9개월 이후이면서 아직 유아 후기가 아닌 시기이므로 1-3세에 획득해야하는 발달 과업은 자율성이다.

19. [정 답] ③

[해 설] 중년기에는 ‘중년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 봉사를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일에 도전하고 또한 청바지를 입어 삶에 활력을 주려하는 것으로 보아 중년기의 심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의 전환기로 황금기를 이루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 통합을 이루는 시기는 노년기이다.

20. [정 답] ④

[해 설] 인터넷의 내용으로 보아 상호간의 친밀감은 형성되지 않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혼자 열정은 있으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은 볼 수가 없다. 혼자서만 좋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도 위험하다. 상대방의 주변에서 서성인다거나 미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훑쳐보면서 즐기기도 하고 실명이 아니라 익명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혼자만의 도취된 사랑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